

결정적 한걸음

성경말씀: 행26:24-29

“정동수 목사님은 언제 어떻게 구원 받았나요?”, “목사들은 다 구원받았나요?”, “사모님, 구원 간증 좀 해 주세요.”, “목사님은 누구와 이야기하면 구원 감별 가능한가요?” 타당한 질문, 저급의 질문

이제는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 어느 장로님의 방문 및 탄식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 오늘은 구원 설교를 하려고 한다.

구원 설교를 한다고 하니 벌써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 “뻔한 이야기 아닌가?” “과연 뻔한 이야기일까?” 특히 지난주에는 스펀전 목사님의 <결정적 한걸음>, 구원의 문턱에까지 갔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운 심정,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

바울은 30세쯤에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 뒤 20,000킬로미터(지구 반 바퀴) 여행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힌 뒤 로마 황제의 청문회에서 심문 받겠다고 베스도 총독에게 청원함

그때 마침 헤롯 아그립바 2세(헤롯의 증손자)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기 위해 방문함.

바울이 베스도, 아그립바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증언함
바리새인(5), 약속의 소망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다(6-7), 그 소망의 핵심은 부활(8),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남(9-15), 예수님의 사명(16-18),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는다. 유대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해 내라(16-18), 그의 순종(19-23).

그의 메시지: (1)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20). (2) 메시지의 핵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23)

베스도의 거부: 네가 미쳤다(24). 바울의 답변: 나는 정신이 온전하다.

아그립바를 향해: 당신은 다 알지 않느냐? 대언자들의 글을 믿지 않느냐?

아그립바의 말: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almost Christian).
아그립바: 유대식 종교 교육,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인지, 가장 위대한 선교사 바울의 증언과 선포 그런데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다. 그는 구원받지 않았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 KJB를 손에 들었으면 다 구원인가?

구원

“왜 구원, 구원 하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1차 이유: 구원, 성경을 읽는 1차 이유: 구원, 사람이 사는 1차 이유: 구원
어디서 구원인가? 죄들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죄들에서 구원
우리 모두가 확실히 아는 것: 사람은 다 죽는다. 태어나서 결국 늙고 병들어 아프다가 죽는다.

왜 그럴까? 성경의 확증: 죄 때문에 그렇다.

인류의 모든 문제: 사망, 도덕의 타락, 전쟁, 기아, 부정부패, 포악함, 환경의 파괴, 짐승들의 신음
이런 죄들과 잘못된 결과들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구원의 상품화 No! 구원을 저질의 구원으로 만들지 말라.

구원의 원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기본 원리의 이해, 기본 원리는 교과서,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곧 죽게 된 분들, 간단하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

1. 필요성: 구원받으려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낀 사람들이다.

베스도와 아그립바의 문제, 절실함이 없다. “그까지 것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

그러면 못 받는다. “꼭 받아야 한다.”는 절실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

메이커(디자이너): 다 목적에 따라 무언가를 만든다. 그리고 반드시 판단한다. 폐기 혹은 합격

마찬가지로 구원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왜 어떻게 여기 있는가?”

“진화했다” 구원 불필요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 받을 때가 있다.

그러므로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시작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2. 방해물: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음, 하나님과 원수 관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첫 아담에게 속하여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죄와 범법 가운데서 이미 죽어 있다. 뿌리에서 잘린 꽃, 아무리 멋있어도(재물, 학식, 권세, 미모 등) 곧 말라 죽고 만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에 ‘죄들’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나무를 고쳐야지 열매들만 고치려 하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의(righteousness), 거룩함(holiness), 100%

구원받으려면 “나는 100%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3. 구원자: 펜이 펜을 고치지 못한다. 보이지만 못 고친다.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만이 고칠 수 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같은 부류의 사람은 결코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

나보다 뛰어난 외부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다.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한다.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가?” “만들어진 것이 만든 분에게 무어라 항의할 수 있나?”

“토기장이와 토기”, 토기장이 방법대로 토기를 만든다.

구덩에 빠진 사람, 구원 수단은 오직 밖의 구출자의 몫

하나님의 요구 조건: 죄 없는 희생물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 속죄해야 한다. 사람, 천사 불가능
구약의 출애굽 사건(출12), 이집트 세상과 죄 상징,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린양이 필요하다(12:3).

(1) 첫째로 그 ‘어린양’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다른 것은 안 된다. 오직 어린양만 된다.

(2) 둘째로 ‘어린양’은 흠이 없어야만 한다(출12:5).

(3) 셋째로 ‘어린양’은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4) 넷째로 ‘어린양’은 대신 죽어야 하는 대속물이어야만 한다.

(5) 다섯째로 ‘어린양’의 피를 뿌려야만 구원이 가능하다(출12:7).

4.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 완전하지 않다(짐승, 사람, 천사 No).

예수님 등장: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요1:29)

예수님은 죄가 되셔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하셨다(고후5:7).

예수님은 참 하나님(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참 사람(친족 구속자, 희생자, 부활자)

이분이 유일한 구원자, 이분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 주신다(히7:25).

결정적 한 걸음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하다.” 구원에도 ‘결정적 한 걸음’이 필요하다. 스필전의 책 <결정적 한 걸음>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이 잘못되었다.” “나는 죄인이다.” “외부의 절대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깨어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다가 불이 나면 일단 불을 보고 깨어서 뛰쳐나가야 산다.

“내가 깨어 있다니 너무 감사해!” 소용없다.

“나는 이렇게 죄가 많아” “너무 고통스러워.” 안다고 상처가 낫지는 않는다.

어느 날 친구가 방문했다.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돈, 신용카드, 신분증 등

“그래도 정말 다행이야.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 안 그래?”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얼마나 감사해. 안 그래?”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친구가 원하는 답은 무엇일까?

“안다고 지갑이 찾아지는 것은 아니잖아. 어디를 가야 지갑을 찾을 수 있을지 알려 줘.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안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는 않아. 찾아야지 위로가 되지.”

구원의 원리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야 위로가 되듯이 지옥으로 향하는 내 영혼을 끄집어내야 구원이다.

참된 구원

어떻게 지옥에서 끄집어내는가? 원리를 깨달음이 아니라 인격체를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요17:3).

‘안다’(know)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동침하는 것을 뜻한다. 아담과 이브

속속들이 인격체로 아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분은 인격체이다.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구원의 날짜, 구원받은 교회, 구원 설교자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면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 삶을 변화시킨다. 이 생명이 있어야 구원이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결과인 삶이 있다.

1. 바울의 증언(20),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works) 행하여야 한다.

2. 침례자 요한의 증언(눅3:7-8);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구원의 날짜가 아니라 구원의 행위가 나와야 한다.

3. 예수님도 지상 사역 시 배척을 받음. 예수님의 말씀: 요10:25, 37, 38

날짜나 경험으로 구원을 삼으면 실패한다.

믿음을 구원의 원인으로 사으면 안 된다.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두 부류의 사람

(1) 심각한 죄 가운데 살다가 말씀을 듣고 눈물 콧물 흘리며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그 날 혹은 그
날 근처를 기억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구원과 교인들: 6일 집회 등을 통해, 그렇다고 정확히
구원 순간을 알 수는 없다.

(2)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 날짜 기억 불가능, 디모데의 변화(딤후
3:14-15), 이렇게 변화된 디모데는 후에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역자가 됨. 이런 경우 구원의
날짜를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빼고는 구원 받은
사건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아벨, 노아, 에녹, 사라, 이삭, 야곱, 다윗, 모세, 구약시대
대부분의 성도들, 날짜가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의 믿음의 행위, 모세의 경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여기고 순종함).

(3) 심지어 신약에서도 바울, 수가 성 여인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날짜가 없다(베드로, 야고보, 요한,
니고데모, 실라, 디도 등, 신약시대 대부분의 성도들)

(4) 구원은 외적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이다. 그것이 결정적 한 걸음을 뎀 증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

외적 날짜 등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주관적인 경험 No!

순복음 교인들은 다 방언해야 구원받은 증표 No!

그러므로 자꾸 구원의 날짜를 묻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구원받으면 당연히 누구에게나 구원의 날이 있지만 그 날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

즉 결정적 한 방은 날짜, 교회, 목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이다.

한 가지 분명한 날짜가 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들을 제거하신 날, 바로 그 날이 있었음을 확신하고 그분만 신뢰하며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 그분의 일들이 나오면 구원받은 사람, 절대 주눅 들지 말라.

특정한 구원 방법과 날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현실

1. 그런 교회의 아이들: 집회 가서 6일 교육 받고 다 구원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10명 중 8-9명이
교회를 떠난다.

2. 그런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에 간다.

3. 거기서 충성 봉사하던 인물이 완전히 배도해서 예수님 부인

4. 성화가 무엇인지 전혀 모름

날짜를 알면 감사, 남 정죄 No!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오는가?

몰라도 감사, 주눅 No! 예수님이 죽으신 날 나도 죽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오는가?

나나 내 아내는 구원의 날짜를 모른다. 6일 성경 강연회 집 No!

다만 예수님이 죽으신 날 우리도 같이 죽었다. 그 날이 100% 확실한 우리의 구원의 날이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

그러므로 말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아야 한다. 주님의 생명이 있는가?

“영의 분별이 있는가?”

“거룩하게 사는가?”

이런 데는 가면 안 된다.

1. 구원 받았으니 죄인이 아니다. 마음대로 죄를 저도 된다.
 2. 구원의 날짜 타령 하는데,
 3. 특정 방법으로 암기 구원 시키는 데,
 4. 성도의 언행이 전혀 변하지 않는 데(욕쟁이들),
 5. 교주 목사가 교황 노릇, 장사,
 6. 은행/신협 구축해서 대출,
 7. 문제 생기면 이혼하라고 하는 데,
 8. 모든 일을 목사에게 의존하게 하는 데,
 9. 과도하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데,
 10. 과도하게 집 팔아 바치라고 하는 데,
 11. 우리만 교회라고 하고, 가지에서 떠나면 죽는다고 하는 데
-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결론

1.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필요
2.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결정적 한 걸음, 결정적 한 방
3. 예수님만 신뢰해야 한다.
4.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그분의 행위들이 나와야 한다.
5. 그래야 구원이다.